



건강하고 화목한 '아빠와 아들' 정은표, 정지웅 부자

건강한 가족의 이미지로 인기몰이 중인 탤런트 정은표, 아들 지웅이와 딸 하은이가 아빠와 함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붕어빵>에 출연하면서 이들은 스타 가족이 됐다. 소박한 습관으로 건강도 챙기고 화목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정은표, 정지웅 부자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글 김겨울(스포츠조선 기자) 사진 SBS, MBC, 고양문화재단



보기만 해도 미소를 머금게 하는 부자(父子)가 있다. 자상한 아빠 정은표와 그의 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들 정지웅이 그들이다. 연예인 부자가 브라운관을 점령하고 있는 지금, 이들 부자의 인기는 단연 손꼽힌다. 주말 저녁,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에서 이들은 이미 빠질 수 없는 티컷대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기를 반영하듯 CF 촬영은 물론, 여기저기서 섭외 요청이 쇄도할 정도다.

“지웅이가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보통 아이들과 ‘다른 아이’는 아닙니다. 다른 시선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정은표는 아들에게 쏟린 지나친 관심이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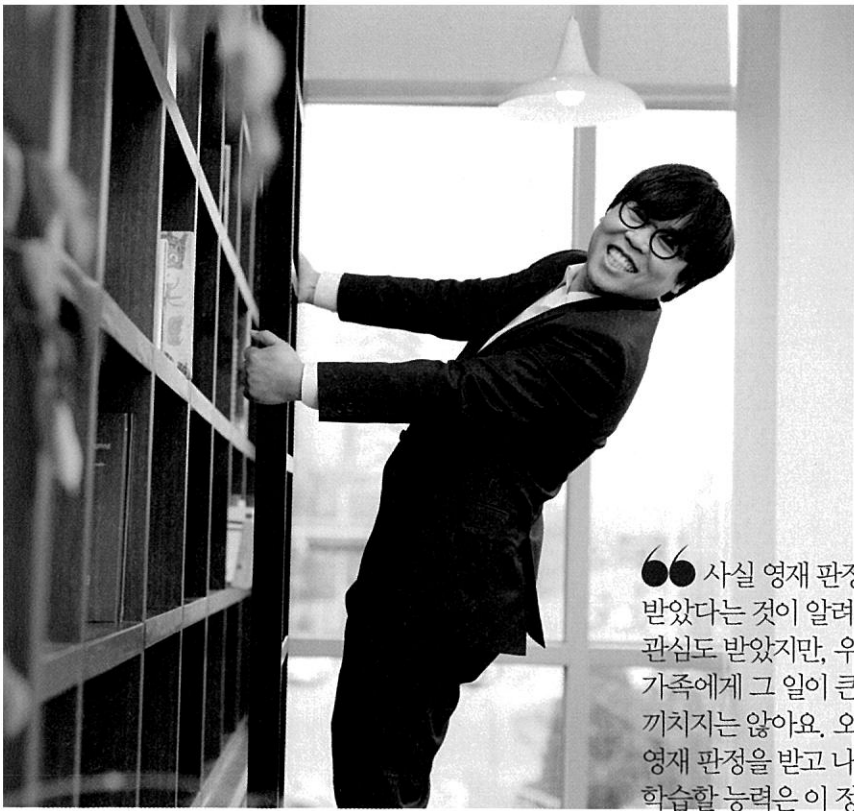
영재 교육보다 사회성이 더 중요

사실 지웅이는 <붕어빵>의 브레인이다. 이 프로그램 인기 코

너 ‘스피드 퀴즈’에서 아이답지 않은 실력을 선보여 다른 출연자들을 놀라게 한다. 영재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똑똑한 지웅이의 어휘 실력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은 당연. 물론 아빠 정은표의 눈높이 설명도 한몫한다.

“지웅이가 워낙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미리 알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맞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이긴 해요. 워낙 책을 많이 읽는 아이라 요즘에는 오히려 좀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할 정도예요.” 정은표는 아들 자랑을 하면서도 유난히 겸손해한다. 요즘은 친구들과 집에서 게임하고, 카드놀이 하고, 포레 아이들과 노는 데 더욱 열심이란다.

“사실 영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도 받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 일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영재 판정을 받고 나서 학습할 능력은 이 정도면 됐으니, 사회성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 사실 영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도 받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 일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영재 판정을 받고 나서 학습할 능력은 이 정도면 됐으니, 사회성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



“시간 날 때마다 지웅이와 줄넘기 천 번씩 넘어요”

정은표는 현재 MBC 사극 <구암 허준>에서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유의태(백윤식)의 제자로 약재 창고를 관리하며,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재를 나눠주는 임오근 역할을 맡아 열연 중이다. “아무래도 사극을 하면 살이 찌게 돼요. 의상도 험렁하게 입고, 밤늦게 촬영하면서 야식을 먹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웅이도 학교 다녀오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은표는 책을 좋아해 집에만 있길 좋아하는 지웅이를 데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줄넘기 천 개씩 하고 온단다. 그는 아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고, 20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동네 한 바퀴를 뛰고 나면 개운하다고. “내게는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지웅이에게는 충분한 운동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엄마도, 하은이도 없이 오로지 지웅이와 아빠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예요.”

평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정은표의 교육 철

학이 묻어났다. 그는 최근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깜짝 선물도 마련했다. 집 앞에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것. “예전엔 아이들이 채소를 잘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말농장을 집 앞에 분양받고, 직접 상추나 호박 같은 것들을 길러 보고 수확해보니 달라지더군요. 호박에 밀가루를 많이 묻히지 않고 호박전을 해서 주면 잘 먹어요. 꼭 건강식을 챙겨 먹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난 음식을 주는 것이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다고 하면 먹는 대로 주지만, 다만 폭식이나 과식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과한 것이 병을 유발한다는 생각에서예요”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정은표 가족은 고양문화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성공한 자녀 교육과 화목하고 친근한 가족의 이미지 덕분이다. 요란하진 않지만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위한 그의 노력은 함께하고 실천하는 소박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